

## 15-16세기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치마의 조형적 특징과 착용양상

김은정 · 이호정\* · 조우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초빙교수\* · 전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wearing pattern of front-bloused-type skirts from 15<sup>th</sup> to 16<sup>th</sup> century

Eun Jung Kim · Ho Jung Lee\* · Woo Hyun Cho\*\*†

Master's Degre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20. 8. 6 접수; 2020. 10. 13 수정; 2020. 11. 6 채택)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front-blouse-type skirts from the 15<sup>th</sup> and 16<sup>th</sup> centuries and aimed to investigate their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wearing patterns. Previous studies, literature, records, paintings, and excavated clothing items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s. The researcher categorized front-blouse-type skirts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construction method. The first has the front-center portion of the skirt folded up, the second has the center portion cut short, and the third has horizontal dart pleats on either side. An examination of 48 items from 18 excavation sites of front-blouse-type skirts showed that only the front-center portion folded up type appeared in the 15<sup>th</sup> century, and it was only in the 16<sup>th</sup> century that the other forms of skirts were worn.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the pattern of wearing front-blouse-type skirts and their changing factors was deduced. Front-blouse-type skirts were identified as ceremonial skirts that were popular in the 15<sup>th</sup> and 16<sup>th</sup> centuries among the types of long skirts available. The popularity and usage of this type of skirt began to spread gradually in the 15<sup>th</sup> century. In the 16<sup>th</sup> century, various types of front-blouse-type skirts were brought into vogue by the royal family and the external regist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opularity of front-blouse-type skirts gradually declined in the 17<sup>th</sup> century as other types of long skirts, folding skirts, and Sran type skirts emerged.

*Key Words:* factor of transition(변화요인),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징), front-bloused type skirts(전단후장형 치마), Joseon dynasty(조선시대), wearing pattern(착용 양상)

---

† Corresponding author ; Woo Hyun Cho

E-mail : joy54@hanmail.net

## I. 서론

치마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양식을 가지고 있으나 착용시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비율이 커서, 제작 방식, 문양 및 색채에 의해 여러 가지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러한 치마의 명칭 변화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상(裳)’ 혹은 ‘군(裙)’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치마는 성종 24년(1493) 『악학궤범(樂學軌範)』 卷 8에 ‘보로(甫老)’라는 명칭이 등장하며, 중종 22년(1527)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 ‘초마’, ‘쥬마’라는 명칭으로 최초 한글로 표기되었다. 『한중록(閑中錄)』에 ‘진홍(眞紅)오호포문단(文緞)치마’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 ‘치마’라는 명칭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유희경, 1975).

한편, 조선시대 치마의 종류는 용도나 착장 방식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나타난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치마에 주목하였다. ‘전단후장형 치마’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한 것처럼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의 치마’를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다. 먼저 용도에 따라 ‘거들치마’와 ‘의례용 치마’(박성실, 1996)로 구분한 경우가 있다. 착장 방식이나 구성법에 따라 ‘다트형 치마’와 ‘거들형 치마’(정미경 외, 2004), ‘앞거듭치마’(고부자, 2007), ‘걸음치마’(송미경, 2007), ‘거들을 잡는 방식의 치마’(최연우 외, 2017) 등으로 구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의미나 개념도 ‘덧주름으로 앞이 짧고 뒤가 끌리는 치마’(박성실, 1996), ‘앞 중심을 걷은 치마’(고부자, 2007) 혹은 ‘앞을 접어 걷은 치마’(송미경, 2007) 등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단후장형 치마’라는 명칭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의 치마나 포류를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단후장형 치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 초중반에 착용된 의례용 치마의 한 종류인 전단후장형 치마에 관한 연구는 그 특징이나 착용 양상에 대한 고찰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치마의 하나인 전단후장형 치마에 주목하여, 그것의 조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부합한 착용양상과 그 변화요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즉, 조선 초기인 15-16세기에 착용되었던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과 특징, 착용 양상 및 그 변화요인을 고찰하는데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례용 치마의 문화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중 전단후장형 치마의 형태에 따른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치마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쇠퇴하게 된 전반적인 착용양상과 그 변화요인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전단후장형 치마가 주로 출토된 시기, 즉 주 착용시기인 15-16세기를 중심으로 하며, 그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7세기 자료까지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 및 방법으로는 문헌 및 선행연구, 회화, 고증재현 자료, 출토 유물 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조사와 실제 유물 자료의 실견 및 실측을 통한 실증적 방법을 모두 진행하였다.

## II. 전단후장형 치마의 형성배경과 유형 분류

### 1. 문헌과 회화를 통해 살펴본 전단후장형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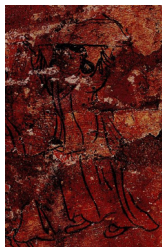
의례용 치마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2년에 “근래에 세속(世俗)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다투어 숭상하여, 남녀(男女)가 옷 해입는 포백(布帛)이 13, 4승(升)에 이르고, 치마의 폭도 또한 15, 6폭이나 된다. … 속치마(裏裳)는 12폭(幅)을 넘기지 말고 겹치마(外裳)는 14폭을 넘기지 말아, 검소(儉素)한 풍습을 가다듬게 하라. (近來世俗, 競尙奢麗, 男女衣服布帛至十三四升, 裳幅亦至十五六. 予惟欲民節儉, 當自身先. 自今進上表裏及衣襪, 毋過十升, 十一升, 帖裏毋過十四幅, 裏裳毋過十二幅, 外裳毋過十四幅, 以勵儉素之風.)”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 김남정(2000)은 당시 속치마(裏裳)와 겹치마(外裳)

이라는 용어를 통해 치마를 2겹으로 입었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례용 치마는 대개 홀치마이며, 앞길이를 짧게 만들어 보행이나 활동을 편하게 하거나 속치마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회화 자료를 통해서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한 상황과 착용모습을 확인하였다. 먼저 려말선초 자료인 박익(朴翊, 1332-1398)묘 벽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복식을 통해 당시 치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벽화의 내용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다례(茶禮)의식을 준비하면서 기물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여성은 긴 저고리류의 상의를 입고 그 밑에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특히 치마 앞쪽 부분은 길이가 짧아 신발의 형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뒷부분은 치마의 길이가 길어 끌리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다례를 준비하면서 보행과 활동에 편리함을 위해 앞길이가 짧고 뒤가 끌리는 형태의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전단후장형 치마가 나타나는 최초의 자료로 추정하였다. 또 다른 자료로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감로왕도(甘露王圖)』(1589)에 표현된 여성들의 복식이다(그림 2). 7명의 여성들이 착용한 치마는 H-라인형으로, 주름이 많아 보이지 않고 앞부분은 신발이 보이게 들리나 뒤는 땅에 끌리는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리부분의 끈이 길게 내려온 것으로

보아 폭이 넓고 긴 치마에 허리띠를 매는 방식으로 치마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임경화, 2002).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기룡(李起龍)의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1629)에서 음식을 들고 가는 여성의 모습에서도 뒤가 끌리는 형태의 치마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김남정, 2000). 마지막으로 농암(龔巖) 종택에 소장되어 있는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宴圖)』에서도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박성실, 2005). 이 장면은 농암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안동부사로 봉직하던 1519년, 80세가 된 자신의 양친과 부(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모시고 양로연을 베푸는 내용이다. 그 중 음식을 나르는 여성들의 차림새를 보면, 거두미를 하고 겹에는 몽두리(蒙頭里)로 보이는 표의를 입고 있으며, 상의로는 긴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의로는 뒤쪽으로 끌리는 형태의 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과 회화자료에 나타난 15-16세기 치마의 특징은 넓은 폭의 긴 치마를 허리에 착용하였고, 보행이나 활동성을 고려하면서 신코부분이 보일 정도의 앞길이가 짧고 뒤가 끌리는 형태의 치마가 다수 착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기물을 들고 가는 여자  
(출처: 密陽古法理壁畫墓, (2003), p.97, 세종출판사.)



〈그림 2〉 헐렁한 H형 실루엣의 치마를 입은 여자들  
(출처: 임경화, (2002), p.44,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3〉 뒤가 끌리는 형태의 치마를 입은 여자  
(출처: 남지기로회도, <https://museum.snu.ac.kr/possess/searching/>)



〈그림 4〉 음식 나르는 여자들의 치마  
(출처: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p.10, 단국대학교출판부.)

〈표 1〉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별 전개도

유형	전개도
중심 폭 접어 올린 형	<p>출처: 연구자 제작</p>
중심 폭 짧게 재단 형	<p>출처: 연구자 제작</p>
양측 가로다트 접음 형	<p>출처: 연구자 제작</p>

## 2.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 분류

15-16세기를 중심으로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의 조형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단후장형 치마의 제작 방법 및 구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구성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용어들을 조사하였고, 각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을 구성법 및 착용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앞 중심을 접어 올려 덧주름 잡아 올린 형태를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이라고 하였다. 이 유형은 치마의 전체적인 형태가 다 완성된 후 편리성 또는 미적인 효과를 위해 앞 중심 부분에 덧주름 잡은 것이다. 수원박물관(2015)에서는 이처럼 덧주름을 잡은 유형은 앞부분 덧주름형, 석주선기념박물관(2019)에서는 거들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5)에서는 입술모양다트, 석주선기념박물관(2019)에서는 상부거들단 하부접음단 등의 용어로 언급하였다. 둘째, 치마의

중심이 되는 폭을 마름질 과정에서부터 짧게 재단하는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이다. 이 유형은 마름질 과정에서부터 앞 중심 부분의 치마 길이를 짧게 재단하여 폭 연결 시에 남은 분량을 삼각다트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박물관(2015)에서는 다트형, 고려대학교박물관(2003)에서는 삼각입체형주름, 소황옥과 임성주(2004)는 사선으로 주름형이라고 지칭하였다. 셋째, 치마의 양쪽 윗부분에 일정한 다트를 잡아 접은 ‘양측 가로 다트 접음 형’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단후장형 치마와는 반대되는 모양, 즉 앞 중심 부분이 U자형으로 늘어서 길게 나타나고, 다트를 잡은 양쪽의 길이가 줄어든 형태이다. 구성법에서 전단후장형 치마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기에 본 연구 자료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이 유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트형으로 표현하였다(수원박물관, 2015). 지금까지 분류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별 전개도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2〉 전단후장형 치마의 출토 현황

생물 연대	묘주 및 착용자	가족 품계 (본인의 품계)	출토지역 (유물점수)	소장처(출처)
15세기	적성이씨 (1458-1538)	종5품(공인)	전남광주(5)	- , (2006 광주출토 조선전기 적성이씨(1458-1538) 고리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강릉김씨 (1479-1552)	정4품(숙부인)	대전(7)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제25회 학술발표 전출토 강릉김씨 유물)
	인천 석남동 무연고묘	알 수 없음	인천(4)	인천 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16세기	구성이씨 (1500년대 추정)	정9품(유인)	경기도안(2)	수원박물관, (2015 (경기도오산) 여흥이씨, 구성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고령신씨 (16세기초)	정6품 또는 종6품 무관으로 추정	남양주별내 (7)	국립민속박물관,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발성과 학술대회(2011) 재), 한백문화재 연구원)
	여흥이씨 (16세기)	정6품(의인)	경기도안(1)	수원박물관, (2015(경기도오산) 여흥이씨, 구성이씨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남양주 별내 무연고여자묘	정3품(숙부인&숙인) 추정	남양주별내 (3)	국립민속박물관,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발성과 학술대회(2011) 재), 한백문화재 연구원)
	안동김씨 (1505-?)	전주이씨 5세손 이현충공 배위	경기도포천(1)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전주이씨 수도군파세 이현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2019)
	연안김씨 (홍몽남1534-1574)	정4품 승정원 좌승지(숙부인)	경기도양평(2)	경기도박물관,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2005)
	평양이씨 (1502-1579)	기성군부인 견성군의 며느리	남양주별내 (1)	경기도박물관, (조선왕실 신성군 母子의 특별한 의 2014)
	평산신씨 (1523-1593)	종6품(인의)	경북문경(1)	옛길박물관(문경새재 박물관), (금선단 치마 입어디 다녀오셨을까! 문경새재 박물관 2005)
	전주이씨 (16C추정)	덕흥군 고모 추정	경기도파평(1)	- , (가평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고찰 한국의류 학지 2017)
	용인 무연고 여자묘	알 수 없음	경기도용인(1)	국립대구박물관, (조선 반가의 여인, 용인에 잠들 2013)
	원주원씨 (1550년대)	정3품(숙부인)	경기도양평(3)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조선조 치마재고-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박성실, 복식 30호)
	은진송씨 (1550년대)	정1품(정경부인)	경기도고양(3)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한국복식 9호)
	파평윤씨 (1566)	정3품 윤원량의 손녀로 추정	경기도파주(3)	고려대학교박물관, (파평윤씨 모자미라 종합 연구 문집 2003)
	남양 홍씨부인	(숙부인) 추정	경기도여주(3)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한국복식 8호)
	용인이씨	종4품 청산현감 호군정 4품 무관의 며느리	대전(1)	대전시립박물관, (2016 대전 안정나씨묘 출토복 특별전 '그리움을 깊고 연정을 짓다')

### Ⅲ. 15-16세기 출토 전단후장형 치마의 특징 및 분석

#### 1. 전단후장형 치마의 출토 현황

지금까지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 자료를 살펴

보면, 15-16세기를 중심으로 총 18건 48점의 유물이 나왔으며,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 유물들의 시기 구분은 송미경(2008)의 논문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와 강릉김씨 유물은 15세기 말-16세기 초로 구분하고 있다. 생물연대가 15세기와 16세기를 걸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표 3〉 전단후장형 치마 유물의 유형별 분류

유형	특징	해당분묘	이미지
중심폭 접어 올린형	치마 앞 중심을 덧주름을 접어 올려 성글게 바느질 하여 고정.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3), 적성 이씨 묘(5), 강릉김씨 묘(7), 여 흥이씨 묘(1), 남양홍씨 묘(1), 고령신씨 묘(7), 원주원씨 묘(3), 구성이씨 묘(1), 연안김씨(1), 용 인이씨(1), 안동김씨 묘(1), 전주 이씨 묘(1)	 <b>인천 석남동 No.16 치마</b> (출처: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p.14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중심폭 짧게 재단형	앞 중심을 짧게 재단하여 양 옆폭과 연결할 때 남은 분량을 삼각다트로 처리하 는 형식	파평윤씨 묘(3), 연안김씨 묘(1), 남양홍씨 묘(1), 은진송씨 묘(3), 평산신씨 묘(1), 남양주 무연고 묘(1), 구성이씨 묘(1)	 <b>파평윤씨 No.12 치마</b> (출처: 파평윤씨 묘자 미라 종합연구 논문집. (2003). p.271. 고려대학교박물관.)
양측가로 다트접음형	삼각다트를 치마 양측에 접어 길이를 줄인 형태, 앞 중심이 넓은 U자로 보여져 오히려 앞 중심보다 다트 양이 많은 옆부분과 뒤쪽 의 치마 길이가 짧음.	연안김씨 묘(1), 평산신씨 묘의 금선단치마(1)	 <b>연안김씨 No.59 치마</b> (출처: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2005). p.274. 경기도박물관.)

15세기 의복의 특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15세기 유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출토된 치마의 현황 중,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15세기에는 3건 1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홀치마가 다수이지만 겹치마나 약식의 솜치마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자료들은 전체 치마폭이 평균 300~450cm 정도이며, 앞뒤길이 차이는 11~15cm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적성이씨의 치마 몇 점은 그 원형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없어 제외하였다. 16세기의 전단후장형 치마는 15건 32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홀치마이다. 구성법에 있어서는 앞 중심 접어 올린 형과 앞 중심 짧게 재단형의 치마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었고, 혼합된 유형

도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전단후장형 치마들은 전체 치마폭이 평균 500~600cm 정도의 광폭이며, 앞뒤길이의 차이는 20~30cm 정도이다. 연구자가 정리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출토 유물은 15-16세기에 걸쳐 총 18건 4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6세기의 것이 15세기에 비해 건수로는 5배, 점수로는 2배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최근 김지희(2020)의 연구를 통해 전단후장형 치마는 무연고 무덤을 제외하고는 외명부들, 즉, 외명부의 봉작을 받은 사람과 왕실과 관련된 신분의 사람들이 착용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전단후장형 치마가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

도권 지역이다. 경기도는 오산, 용인, 양평, 가평, 남양주 별내, 하남, 포천, 고양, 파주 지역으로 경기 북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외로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문경, 전라남도 광주(경기도 광주에서 이주)지역(김미정, 2006)에서 출토되었다. 이처럼 전단후장형 치마는 당시의 수도였던 한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전단후장형 치마유물의 유형별 분류

앞에서 제시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 분류에 따라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자료들을 분류해보았다(표 3). 먼저 중심 폭 접어 올림형은 앞 중심을 접어 올려 덧주름 잡아 올린 형태와 덧주름과 접음단을 혼합한 형태로 이중주름의 효과를 주는 변화 유형도 포함하였다.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3점), 적성이씨 묘(5), 강릉김씨 묘(7), 여흥이씨 묘(1), 남양홍씨 묘(1), 고령신씨 묘(7), 원주원씨 묘(3), 구성이씨 묘(1), 연안김씨 묘(1), 용인이씨 묘(1)에서 출토된 치마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치마 1점은 입술모양의 덧주름을 3개 이상 잡은 형태이다. 또한, 안동김씨 묘와 전주 이씨 묘에서는 앞 중심에 덧주름과 접음단을 함께 접어 올려 이중주름의 효과를 준 치마가 각각 출토되었다.

다음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은 치마의 앞 중심폭 부분의 길이를 마름질 과정에서 짧게 재단하여 양 옆쪽 폭과 연결할 때 남은 분량을 삼각다트로 만드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유물은 파평윤씨 묘(3), 연안김씨 묘(1), 남양홍씨 묘(1), 은진송씨 묘(3), 평산신씨 묘(1), 남양주 무연고 묘(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은 다트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 다트분량을 허리부분에서 처리하면서 앞 중심폭 부분의 길이를 짧게 재단하되 옆폭과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도록 제작한 형태도 두 번째 유형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치마는 구성이씨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 가로 다트 접음 형은 치마 양 쪽에서 삼각다트를 잡아 길이를 줄인 형태이다. 즉, 앞 중심 부분이 더

길고, 다트양이 많은 옆과 뒤쪽 부분의 치마길이 짧아져 전체적으로는 U자형을 띠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치마는 연안김씨 묘(1), 평산신씨 묘의 금선단치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단후장형 치마 유물을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추정해보면, 중심 폭 짧게 재단형은 전체 치마의 길이를 비례에 맞춰 정해 놓고 마름질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재단과 바느질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양측 가로 다트 접음형도 다트의 분량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제작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수량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물 자료 중에는 앞 중심 접어 올린 형과 짧게 재단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기에 따른 과도기적 형태이자 제작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물로 보인다.

## 3. 조형적 특징

전단후장형 치마의 전반적인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태, 소재, 색채, 문양에 관한 내용들은 선행연구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 형태적 특징에 대한 내용은 앞서 구성법에 따른 유형 분류에 따라 나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착장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인 봉제기법 및 디테일에 대해서는 실물자료를 실견 및 실측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다. 실물자료의 실견 및 실측은 2019년 9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전단후장형 치마 유물 중, 남양홍씨 홀치마 2점과 안동김씨 치마 1점을 조사하였다.

### 1) 형태적 특징

각 유형의 형태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치마를 펼쳤을 때의 외형뿐만 아니라 착장했을 때의 표현되는 실루엣도 함께 고찰하였다.

먼저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은 앞 중심 폭 부분에 주름을 잡은 것으로, 주름의 형태가 일자형 또

〈표 4〉 치마 유형별 형태적 특징

유형	구성법	착장형태	특징	변화형
중심 폭 접어 올림 형	중심 폭을 접어 올려 주름을 고정한 형태	허리에 입는 치마형태로 앞중심은 짧고 뒤는 끌리는 형태	세부 구성법으로 일자형, 입술 모양 형태	상부주름과 접음단 장식이 공존하여 이중주름의 효과를 주는 형태
중심 폭 짧게 재단 형	중심 폭을 짧게 재단하여 옆폭과 연결 시 남은 분량을 삼각다트를 만들어서 길이를 조절한 형태	치마의 앞뒤길이가 명확하게 차이남,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	양쪽 삼각 다트와 옆폭과의 연결부분이 풍성한 드레이프성이 특징인 형태	다트를 허리에서 처리하여 길이를 조절한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루엣 연출
양측 가로다트 접음 형	치마의 양측에 가로다트를 접어 올려 길이를 조절한 형태	앞 중심의 치마 밑단은 U자 형태로 늘어져 있고 옆과 뒤쪽은 다트의 분량만큼 길이가 줄어든 형태	전단후장형의 구성법에 부합하나,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	삼각다트와 입술모양의 다트의 형태

는 입술 모양형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덧주름을 잡거나 치마 폭에 주름을 잡은 동시에 접음단 장식을 하여 이중주름의 효과를 주는 등의 변화형도 나타났다. 특히 3개의 덧주름을 잡은 유형은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치마이다. 이 치마는 3개의 주름외에 또 다른 바느질 흔적이 확인되어 3개 이상의 덧주름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착장 형태에서의 특징은 덧주름에 의해 앞이 더욱 풍성하고 치마의 뒤쪽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성이 표현되어 연출된다는 점이다.

다음,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은 앞 중심 폭을 마름질 과정에서부터 그 길이를 짧게 재단하여 옆폭과 연결시에 남은 분량을 삼각다트로 처리한 형태이다. 이 때 변화된 유형으로는 다트를 허리 부분에서 처리하여 덧주름이나 다트를 생략해버리는 형이 있다. 즉 재단 시에 앞 길이를 짧게 하면서 옆폭과 자연스러운 사선으로 제작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보다 더욱 치마의 앞뒤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착장시에는 다트 주름으로 인해 옆선부분에서 돋보이는 드레이프성이 나타나며, 뒤로 끌리는 길고 넓은 형태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연출된다. 더욱이 스란단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 앞과 뒤의 길이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앞 중심 폭 접어올린 형과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이 변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났다. 16세기 초반에는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이 주로 나타나며, 중반에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의 변화형인 덧주름과 접음단을 함께 사용하여 이중 주름의 효과를 준 치마 형태도 볼 수 있다(허정애, 2013). 즉, 16세기 전 시기에 걸쳐 이 두 가지 유형의 치마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 가로다트 접음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 중심의 치마 밑단이 U자 형태로 늘어져 있고 앞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줄어든 형태이다. 이 유형의 치마를 착장했을 시에는 다트의 위치와 분량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단후장형 치마의 구성법에 의한 유형 분류에 따라 그 형태적 특징 및 착장 형태를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 2) 소재, 색채 및 문양

전단후장형 치마에 주로 많이 사용된 소재는 주(紬)와 초(綃)이다. 또한, 문사, 문라, 문단 등의 문양이 있는 소재가 다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혼례 때 사대부가의 신부들이 금선(金線)과 주로(珠露)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록이



〈표 5〉 전단후장형 치마의 소재, 색채, 문양 및 구성

시기	묘주 및 착용자	소재	색채	문양	구성
15세기	적성이씨(1458-1538)	토주(2), 주(3) 토주+주(1)	-	없음	홀(1), 겹(4)
	강릉김씨(1479-1552)	숙초(5), 세주(2)	-	없음	홀(7)
	인천 석남동 무연고묘	저주지(1), 운문단,주(1),	베이지색,아청색, 자주색	운문	숨(1), 겹(2), 홀(1)
16세기	구성이씨(1500년대 추정)	운보문사 (1), 연화보상문단,직금단(1)	녹색민갈색, 보라민 짙은갈색	연화동자문 (직금슬란치마), 운보문, 보상문	홀(2)
	여흥이씨(1500년대 추정)	명주(1)	황색갈변 붉은색을띠	-	홀(1)
	고령신씨(16세기초)	주(5), 초(2)	-	-	홀(6), 겹(1)
	남양주 벌내 무연고여자묘	주(2), 초(1)	-	-	홀(2), 겹(1)
	평양이씨(1502-1579)	화문사(1)	소색	화문	홀(1)
	연안김씨 (홍몽남1534-1574)	화문단,화문라(1) 화문사,모시(1)	자주색,베이지색	연화보문,연화문	홀(2)
	안동김씨(1505-?)	명주(1)	-	-	겹(1)
	평산신씨 (1523-1593)	금선단(1), 화문단(1)	직금	연화문금선단	홀(2)
	원주원씨(1550년대)	칠보연화문(1), 설한초(2)	적갈색	칠보연화문	홀(3)
	은진송씨(1550년대)	화문사(1), 명주(1), 설한초(1)	연갈색,녹갈색	연화문	홀(3)
	파평윤씨(1566)	운문단(1), 생초(1), 생초,주(1)	황갈색	운보문	홀(3)
	남양홍씨부인	화문단(1), 설한초(2)	-	연화문	홀(3)
	용인이씨	칠보운문단(1)	소색	칠보운	겹(1)
전주이씨(16C추정)	주(1)	-	-	겹(1)	

남아있다(이수현, 2016). 이때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체를 금선단으로 제작한 유물도 출토되었다.

한편 출토복식에서의 색채는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었던 관계로 갈변이나 황변 등의 변화 및 오염 및 이염에 의해 정확한 색채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는 출토되었을 당시 시점의 색채를 기록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치마에 사용된 문양은 화문, 운문, 연화동자문(남양홍씨 부인 치마 스란단), 포도동자문, 칠보문 등이다.

다음은 소재, 색채 및 문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 5〉로 정리한 것이다.

전단후장형 치마의 소재, 색채 및 문양에 대한

내용을 각 분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15세기의 적성이씨에서 출토된 5점의 전단후장형 치마의 소재는 토주와 주이다. 유물의 오염과 이염이 심해 정확한 색채는 알 수 없으며, 홀과 겹치마가 모두 확인되었다(김미정, 2006). 강릉김씨에서 나온 7점의 홀치마는 숙초, 세주 등의 얇은 고급직물을 사용하였고, 색채는 알 수 없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인천 석남동 무연고 여자묘에서는 홀치마 1점, 겹치마 2점, 숨치마 1점의 치마가 출토되었다. 주, 운문단 등 모두 견을 사용하였고, 베이지색, 아청색, 자주색이며, 운문이 확인되었다(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16세기의 자료로, 구성이씨 묘에서는 운보문사, 연화보상문단과 직금단을 혼용하여 사용한



〈그림 5〉 남양홍씨 치마 I의  
주름 부분

출처: 연구자 촬영(2019.09)



〈그림 6〉 남양홍씨 치마 II의  
주름 부분

출처: 연구자 촬영(2019.09)



〈그림 7〉 안동김씨 치마의  
맞주름 부분

출처: 연구자 촬영(2019.09)

홀치마가 각각 1점씩 총 2점 출토되었다. 색채는 녹색 띠 갈색, 보라 띠 짙은 갈색이다(수원박물관, 2015). 여흥이씨 묘에서는 황색갈변된 붉은색의 명주로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가 출토되었다(수원박물관, 2015). 남양주 별내 무연고 여자묘에서는 홀치마 2점, 겹치마 1점이 출토되었고, 소재로는 주와 초를 사용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평양이씨묘에서 출토된 치마는 소색의 화문사를 썼고 허리부분은 생명주로 제작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14). 고려신씨 묘에서 출토된 자료는 홀치마 6점, 겹치마 1점으로 초와 주로 제작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홀치마 2점은 화문단, 화문라, 화문사를 사용하였고, 자주색 연화보문단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경기도박물관, 2005). 안동김씨 묘에서 출토된 명주 겹치마는 무게가 상당하며, 치마하부에 접음단이 있어 특이한 형태이다(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2019). 평산신씨 묘에서 출토된 화문의 금선단으로 제작된 전단후장형 치마는 전체를 금선단으로 만든 치마로, 주목되는 자료이다. 16세기 중기의 자료로 원주원씨의 것은 홀치마 3점으로 필보연화문단, 스란직금포도동자문단을 사용하였으며, 스란이 치마 중간에 달려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박성실, 1996). 파평윤씨 묘에서는 홀치마 3점의 출토되었는데, 황갈색으로 보이는 운문단과 생초로 제작된 전단후장형 치마이다(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은진송씨 묘에서 출토된 홀치마 3점은 연화당초문사, 명주, 설한초로 제작된 것이다(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1991). 16세기 후기에의 자료로는 남양홍씨 묘에서 출토된 화문단과 화문사로 제작된 홀치마 3점이 있다(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1990). 용인이씨묘에서는 칠보

운문단 치마가 출토되었고(대전시립박물관, 2016), 전주이씨 묘의 자료는 겹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로 된 겹치마이다(최연우 외, 2017).

### 3) 봉제 및 디테일

전단후장형 치마의 형태 및 실루엣에 대한 고찰에 있어 반드시 살펴되어야 할 부분은 치마를 제작하는 과정인 봉제 기법과 디테일 구성이다. 각 구성 부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봉제되었고, 주름이나 밑단, 선단 도련 부분의 구성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제 유물을 실견한 자료와 보고서를 함께 고찰하였다.

먼저 치마의 각 폭을 연결한 봉제법을 살펴보면, 당시 직물의 낭비없이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봉제한 양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연안김씨 No. 59 치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식서끼리 고운 박음질로 시접 1cm로 연결하였으며, 가윗밥은 약 10cm정도 간격으로 넣었다(경기도박물관, 2006). 평산신씨 No. 1415 치마의 폭 연결도 식서끼리 온박음질로 연결하여 가름술로 시접처리 하였다(문경새재박물관, 2005). 대부분의 전단후장형 치마의 폭 연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홈질과 박음질 기법을 사용하였고, 술기의 처리는 외술기와 가름술이며, 외술기의 시접에는 가윗밥을 주어 처리하였다.

한편 치마의 실루엣과 관련이 깊은 것은 주름의 형태이다. 전단후장형 치마의 주름은 대부분 오른쪽으로 잡은 것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견 결과 남양홍씨 치마 2점의 경우 주름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홑치마1의 주름 너비는 1.4-4cm이며, 개수는 40개였으며(그림 5), 홑치마2의 주름은 1.8-3cm의 간격으로 잡혀 있었다(그림 6). 홑치마2는 치마 절반이 유실로 인해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부분만 살펴볼 수 있었다. 주름의 형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자료는 안동김씨 치마 No. 11494인데, 특이하게도 치마의 중심에 맞주름으로 잡혀 있다. 즉, 왼쪽 폭 부분은 왼 주름으로, 오른쪽 폭 부분은 오른 주름으로 잡혀 있었으며, 안주름은 겹주름의 거의 두 배 정도 분량으로 넣어져 사용된 치마 원단의 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선단과 도련은 치마의 장식성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봉제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치마를 홑 또는 겹으로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도련단 부분 처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홑치마의 경우, 치마의 제감으로 선단을 제물단으로 처리하고, 아랫단은 겹감을 덧대거나 이색단으로 단을 만들기도 한다(임경화, 2002). 겹치마의 경우에는 겹감과 안감을 사용하여 눈썹단으로 처리하거나 접음단으로 처리하여 장식효과를 주었다. 옆선은 겹부분이 뜨지 않도록 안감과 함께 숨뜨기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 IV.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 및 변화요인

조선 전기에 등장한 전단후장형 치마와 같은 의례용 치마는 일반적으로 입진왜란을 기점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있다(박나나, 2019). 이에 본 장에서는 15~16세기의 전단후장형 치마가 등장하여 유행 시기를 거쳐 쇠퇴 혹은 다른 유형의 치마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고찰해보고자 15-16세기에 나타나는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과 함께 쇠퇴되어간 이후의 치마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17세기의 자료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추론하여 당시 조선 초중기 여성들의 의생활을

통한 생활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1.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

전단후장형 치마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착용하였는지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먼저 회화 자료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려말선초 자료인 박익묘 벽화에 등장하는 기물을 들고 가는 여성이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치마가 착용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등장시기를 14세기 말엽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단후장형 치마의 출토 유물 중에서,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광주에서 출토된 적성이씨의 치마 유물 5점이다. 이 유물 5점은 모두 유실된 부분이 있어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 전체 치수를 알 수 없으나, 치마 폭 내에 접은 흔적이 확인되어 전단후장형 치마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에는 3건의 16점의 전단후장형 치마가 확인되며, 16세기의 것은 15건의 32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6세기에 들어와 전단후장형 치마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에서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으로의 유형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중 주름 효과를 준 변형된 형태로도 착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17세기 이후에는 전단후장형 치마의 형태를 거의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안동 권씨 묘 출토 복식이나 의궤 자료를 통해 이후의 양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안동권씨(1664-1722) 묘에서 출토된 치마 자료(No.39)의 전체 규모는 길이 129cm, 폭 너비 464cm, 총 7폭으로 구성된 화문단 홑치마이다. 치마의 중간 부분에는 약간의 굵은 실이 드물고 성긴 모양으로 달려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치마 폭 중간을 접어 올린 덧주름을 고정했거나 치마의 주름을 고정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치마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규모가 16세기의 전단후장형 치마처럼 길고 큰, 풍성한 폭으로 나타나고, 치마 중간 부분에 남아

있는 실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전단후장형 치마와 같은 성격의 의례용으로 착용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1696) 반차도 중 표현된 보행내인 혹은 보행시녀의 모습에서 뒷부분이 땅에 끌리는 형태의 치마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후반기의 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1651), 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1681), 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1718), 효의왕후가례도감의궤(1762) 반차도 중 여종 대함비(戴函婢)의 뒤가 끌리는 모습으로 표현된 치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까지 계속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치마 유형 중 전단후장형 치마와 같이 뒤가 끌리는 형태의 치마는 지속적으로 착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더 치마의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치마와 10cm이상의 길이 차이가 나는 장치마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며, 다양한 관품의 사람들이 착용했다. 출토된 장치마의 구성은 홑, 겹, 솜치마 등이며, 실크뿐만 아니라 면 혹은 마직물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품의 사람들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김남정, 2000). 이 중 홑, 겹의 구성이면서 주, 단, 사 등의 실크소재로 제작된 것을 의례용으로 착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출토된 장치마의 길이는 99~145cm 정도로 일반치마에 비해 평균 28cm 정도 길다(허정애, 2016).

앞에서 언급한 17세기 장치마류와 전단후장형 치마와의 관련성을 추론해보면, 먼저 전단후장형 치마는 15-16세기에 유행했던 의례용 장치마에 포함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사료된다. 장치마는 구성과 소재에 따라 의례용과 일반용으로 나뉘어 착용하였는데, 홑, 겹 구성에 실크 소재로 제작한 것을 의례용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례용 장치마의 조형적 특징 중 전체적인 길이가 길거나 실크 소재를 대부분 사용했다는 점은 전단후장형 치마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의례용 장치마와 전단후장형 치마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을 종합 추론하면, 14세기 말 즈음부터 전단후장형과 유사한 유형의 장치마가 존재하였을 것이며, 15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의례용의 성격

을 가진 전단후장형의 치마가 차차 사람들에게 소개되면서 착용되었다. 이후 16세기에는 왕실 사람 및 외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제작된 전단후장형 치마가 유행하듯이 착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전단후장형 치마 유형은 점차 쇠퇴하면서, 장치마, 접음단 치마, 스란치마 등의 유형으로 변화되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착용양상 변화의 요인

전단후장형 치마는 15세기부터 점차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하면서 16세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유행하였다가, 17세기에 들어서서는 또 다른 유형의 치마로 바뀌어 나가는 착용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 변화가 나타나는 데에는 당시 여성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복식 이론들을 바탕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양상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다방면으로 추론하였다.

### 1)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특정 신분의 표시 및 활동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한 것이 확실한 적성이 씨가 살았던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기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즉 고려시대부터 반영되었던 사회적 남녀의 역할 및 지위가 그대로 조선 사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는 이미 제시되어왔다. 16세기 이전 여성은 균분 상속이 원칙에 의해 자신만의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기도 하며, 혼인 이후에는 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양상이 일반적이었다(강명관, 2009). 이처럼 16세기까지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의복이 유행처럼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세기의 여성들의 외부 활동은 17세기 이후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립되기 전보다는 자유로웠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성이 외부로 이탈하는 것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

이어서, 단속의 대상이었다(강명관, 2009). 당시 여성들의 대표적인 외부활동은 사찰의 출입이었는데, 여성들이 참여하는 불교 의식은 삼국시대 불교 수용 이후 생활화한 것이었고, 더욱이 오락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시킬 수 없었다. 또한, 조선 왕실의 여성들이 사찰의 후원자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사찰 출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화된 의식 행사가 여성들의 사교적인 모임장이 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이러한 의식이나 행사 때 착용해야 할 고급 의복이 필요했을 수 있다. 이처럼 전단후장형 치마는 생활화된 의례용의 용도로써, 당시 유행처럼 착용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당시 전단후장형 치마는 정품의 품계에 해당하는 정정부인, 숙부인, 의인, 유인과 종품의 인의, 공인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착용하였다. 이러한 문무백관의 부인이나 가족들을 외명부라 통칭하였으며, 남편이나 아들의 출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와 생활을 누렸던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명부뿐만 아니라 왕실의 여성들은 회례연(會禮宴), 친감례(親蠶禮), 작헌례(酌獻禮), 진연(進宴) 등에 참석하거나 왕비의 책봉례(冊封禮) 때 내명부와 함께 진하(進賀)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례와 연회에서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착용되었던 의례복들은 궁중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받았다고 한다.(황진영, 2008). 이들의 복식은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닌 품계를 가졌던 여성들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5), 그들의 복식 또한 특별한 성격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전단후장형 치마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표명하는 의복 아이템으로 유행하듯 착용되었다가, 17세기 이후 성리학에 입각한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립되면서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점차 다른 유형의 치마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사치풍조의 만연과 착용감에 따른 여성 심리 변화

고려 후기부터 시작된 사치풍조의 만연과 신분 질서의 붕괴로 왕실 및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사치스럽고 화려한 직물이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견직물 산업의 취약으로 중국으로부터 공무역을 통해 수입되던 문직물의 수량이 확대되면서 대량의 견직물을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조선 초기 시기까지 이어져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하였다(박정임, 2010).

한편 조선 16세기 전반의 의복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평산신씨 묘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선단(金線緞)을 사용하여 제작한 전단후장형 치마가 출토되어 이목을 끌었다. 그 당시 치마뿐만 아니라 저고리와 같은 상의류 중에도 금선단을 사용한 사례는 다수이며, 이러한 의복들은 의례용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선단과 같은 고급 소재는 당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였거나 중개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수 있다(이수현, 2016). 당시의 이러한 사회풍조와 경제무역 구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신분 혹은 계급의 구분 없이 고급직물로 제작한 화려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그들의 정서나 의식을 더욱 과시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점이 풍성하고 폭이 넓은 치마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경제적인 과시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의복은 그 착용감이 중요하다. 이미 전단후장형 치마는 보행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뒷주름 혹은 다트를 잡거나 앞 중심폭을 짧게 재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마를 제작하여 착용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자료를 통해 치마가 갖고 있는 착용상의 불편할 만한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풍성한 치마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의 속옷류를 겹쳐서 입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마 제작시에 원단의 전폭을 사용하고 있는데, 허리둘레에 맞추기 위해 겹주름과 안주름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표적으로 안동김씨 치마(No.11494)의 경우 안주름 분량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실견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름이 잡힌 분량도 일정하지 않다. 대부분 오른주름이며, 뒷자락에 주름이 겹쳐지면서 풍성한 실루엣이 형성되지만, 이 실루엣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훌치마로 제작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두꺼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겹치마로 제작할 경우 의복 자체를 다루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착용감에 따른 심리적인 요소, 즉 착용

감에 있어 불편한 요소들이 전단후장형 치마의 쇠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5-16세기를 중심으로 착용되었던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치마의 조형적 특징과 착용양상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 의례용 치마의 문화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출토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며 이 의복의 착용양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해 보고자 함이다. 연구범위는 15-16세기를 중심으로 17세기의 자료를 참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 자료와 방법은 문헌, 선행연구, 출토유물자료, 회화 자료를 활용한 문헌적 방법과 실제 유물 자료의 실견을 통한 실증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단후장형 치마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료와 회화자료에 표현된 의례용 치마에 대한 기록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치풍조가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폭넓은 치마가 유행했으며, 왕실과 외명부를 중심으로 전단후장형 치마를 비롯한 의례용 치마가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심도있는 특징 분석을 위하여 형태와 구성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앞 중심 폭 접어올린 형은 앞 중심폭 부분에 덧주름을 잡아주는 유형이다. 주름의 형태가 일자형과 입술모양형으로 나뉘고, 덧주름을 3개 이상 잡거나, 접음 단 장식을 추가하여 장식효과를 높인 형태도 나타났다. 두 번째, 중심 폭 짧게 재단형은, 마름질 과정에서 앞 중심폭의 길이를 짧게 재단한 것이다. 폭과 폭을 연결할 때 생기는 남는 부분을 삼각다트 시접으로 처리하거나 허리부분에서 처리한 형태도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 가로다트 접음형은 치마 양쪽 부분의 폭에서 다트를 잡아준 형태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앞 부분이 U자로 늘어져 전단후장형과 반대 개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지만 전단후장형의 구성법과 부합하여 포함시켰다.

세분화한 전단후장형 치마의 유형을 바탕으로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출토된 전단후장형 치마의 수량은 총 18건의 48점으로 확인하였다. 출토된 자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품계를 갖고 있는 외명부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착용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조형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겹이나 숨을 둔 것보다 홀치마로 구성된 것이 많으며, 소재는 주초·사단을 주로 사용했고, 특히 금선단으로 제작한 치마가 특징적이었다. 색채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청색과 자주색 등의 붉은색 계열, 갈색 계열 등을 사용하였다. 당시 주로 사용했던 문양은 운문, 연화문, 운보문, 연화보문, 화문 등이다. 또한 세분화한 유형에 따른 특징은 시기에 따라 앞 중심 폭 접어올린 형과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이 변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16세기 초반에는 중심 폭 접어 올린 형이 주로 나타나며, 중반에 중심 폭 짧게 재단 형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16세기 전 시기에 걸쳐 이 두 가지 유형의 치마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단후장형 치마의 착용 양상과 그 변화 요인을 추론하고 당시 여성들의 의생활을 통한 생활상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는 고려시대부터 반영된 사회적 남녀의 역할 및 지위가 그대로 이어져 여성들은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복식의 착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려 후기의 사치 풍조와 신분 질서의 붕괴 현상이 지속되어 조선 초기에는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신분 혹은 계급의 구분 없이 고급직물을 선호하여 값비싸고 화려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과시하고자 하는 정서가 반영된 풍성하고 폭이 넓은 전단후장형 치마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16세기에는 현재 남아있는 전단후장형 치마의 출토물 수량이 많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후장형 치마를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 중개무역도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고급 직물이 국내로 다수 유입될 수 있던 환경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외부로의 이탈, 즉, 사찰의 출입과 같은 생활화된 의식 행사 때

착용할 수 있는 의례용 복식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단후장형 치마는 당시의 유행 아이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전단후장형 치마는 대부분 문무백관의 부인이나 가족의 묘에서 출토 되었는데, 이는 '외명부'에 속하는 인물들이며, 이들의 복식은 당시 품계를 가졌던 여성들의 특별한 성격을 가진 의복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단후장형 치마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착용감 등의 심리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인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점차 다른 유형의 치마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전단후장형 치마는 장치마의 유형 중 15-16세기에 유행했던 의례용 치마로서, 15세기에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에는 왕실과 외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단후장형 치마가 유행하듯이 착용되었다. 17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전단후장형 치마 유형은 점차 쇠퇴하면서, 장치마, 접음단 치마, 스란 치마 등의 유형으로 변화되어 나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6). *진주류씨 배위 의인 박씨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11). *경기명가 기증 출토복식 명품전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 용인: 경기도박물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파평윤씨 묘자 미라 종합연구 논문집 2*.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 고부자. (2007). *大田 出土 江陵 金氏(女, 朝鮮 前期)유물*. 용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고부자, 박성실. (1990). 여주 출토 동래정씨 출토 유물 소고. *한국복식*, 8, 71-125.
-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 변씨 출토유물 기증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04). *朝鮮時代(風俗)畵*. 서울: 동방미디어.
- 국립중앙박물관. (2009). *(조선시대)향연과 의례: 잔치풍경*. 서울: 씨티파트너.
- 김남정. (2000). *조선시대 치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6). *光州出土 朝鮮前期 積城 李氏(女, 1458-1538) 저고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2020). *조선시대 거들치마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9).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현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 대전시립박물관(2016). *안정나씨묘 출토복식 특별전 그리움을 입고 연정을 짓다*. 대전: 대전시립박물관.
- 문경새재박물관. (2005).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서울: 민속원.
- 박나나. (2019). *동아시아 여자 군·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실. (1996). 朝鮮朝 치마 再考: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30, 295-306.
- 박성실, 고부자. (1991). 고양 능곡 무원 출토 나주 정씨 월천공파 출토 유물 소고. *한국복식*, 9, 133-162.
-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한국복식명품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 박정임. (2010). *15-18세기 출토직물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섬유산업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황옥, 임성주. (2004). 조선조 은진송씨 치마 저고리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9, 1-11.
- 송미경. (2003). 驪興 閔氏(1586~1656) 墓 출토복식. *服飾*, 53(4), 177-186.
- 송미경. (2007). 16세기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 남양홍씨 몽남(夢男: 1534~1574)배위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57(8), 125-136.
- 송미경. (2008). 조선시대 여자복식 감정을 위한 각 시대별 특징 연구 - 15세기-18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58(5), 71-86.
- 송미경. (2009). 진주류씨 배위 의인박씨 묘 출토복식의 연대 추정. *服飾*, 59(5), 135-151.
- 수원박물관. (2015). *경기오산 여흥이씨·구성이*

- 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수원: 수원박물관.  
 심봉근. (2003). *密陽古法埋壁畫墓*. 부산: 세종출판사  
 여주박물관. (2011).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조 처리 보고서*. 여주: 여주박물관.  
 유희경. (1975).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기룡. (n.d.). 남지기로회도. 자료검색일 2019. 10. 4, 자료출처 <https://museum.snu.ac.kr/possess/searching/>  
 이수현, 조우현. (2004). 한국 전통치마의 착용 실루엣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1), 73-87.  
 이수현. (2016). *조선시대 문직물의 수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2003). 장기 鄭氏(1565~1614) 묘의 출토복식. *服飾*, 53(3), 73-87.  
 이은주, 하명은, 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 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服飾文化*, 10(1), 155-17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형상. (n.d.). 병와집. 자료검색일 2019. 9. 2, 자료출처 <http://db.mkstudy.com/mksdb/e/korean-literary-collection/book/reader/8634/?sideTab=toc&contentTab=text&articleId=1138166>  
 임경화. (2002). *치마의 장식 요소와 표현성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부터 2001년까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우. (2001).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봉제 구성 -임경백, 임계백 묘 중심-. *服飾*, 51(1), 33-48.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n.d.). 자료검색일 2019. 9. 2, 자료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5\\_004](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5_004)  
 조미나. (2012). *조선왕조「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궁녀의 직무에 따른 복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8). *조선시대 여인의 옷*. 청주: 충북대학교박물관.  
 최연우, 박윤미, 김윤경, 김지희, 박양희, 이선우, 차서연, 편나영, 황혜남. (2017). 가평 전주 이씨묘 출토복식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41(5), 840-85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5). *조선왕실의 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허정애. (2013). *조선시대 묘에서 출토된 치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영. (2008). *조선시대 궁녀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